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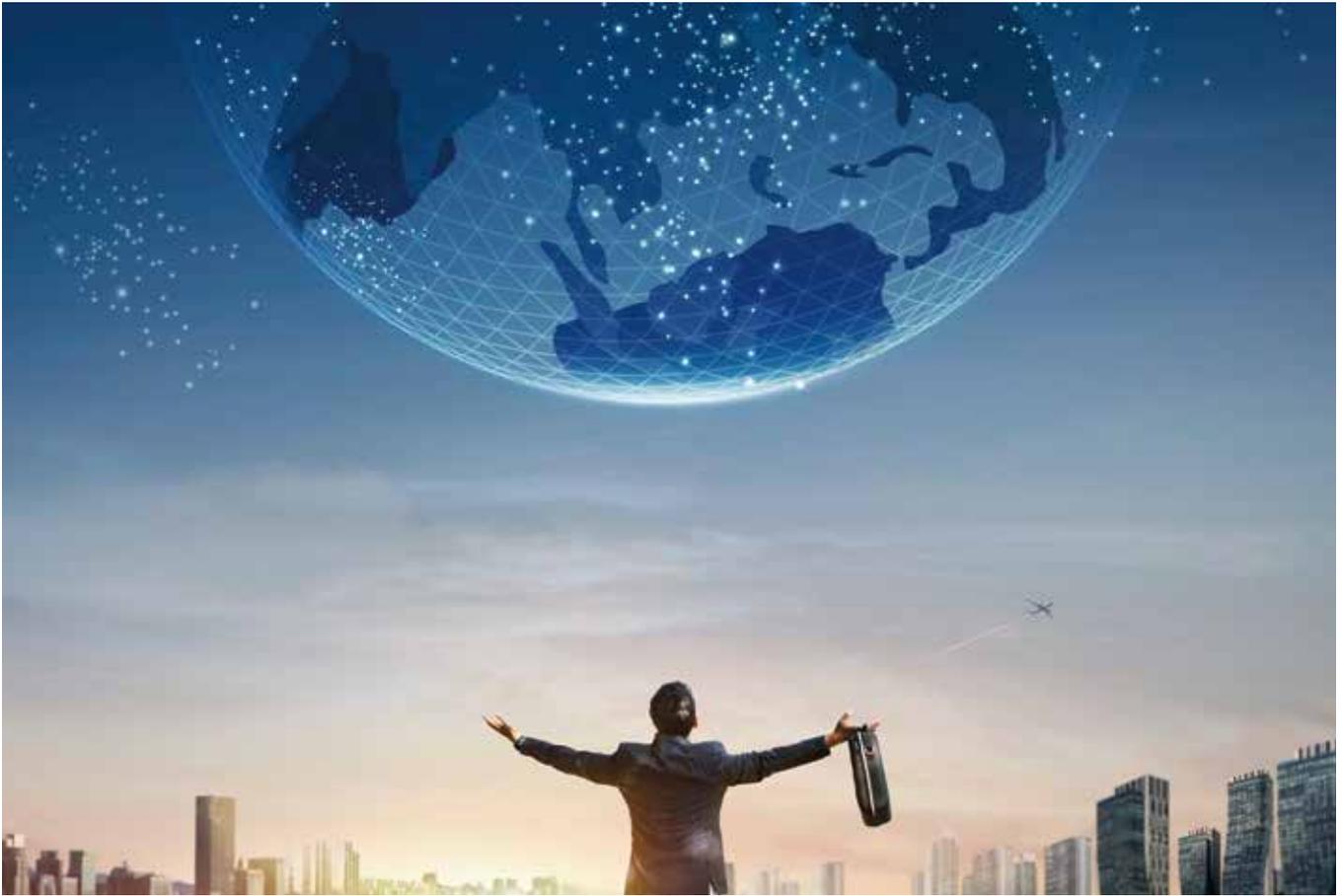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NOVEMBER
Vol.250

기업의 성공적인 Globalization
이끄는 파트너

삼성 KPMG



우리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Global Business Partner!

삼성KPMG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Globalization을 지원하기 위해 143개국의 KPMG Global Network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ASPAC Partners Conference가 개최되어, ASPAC 주요 파트너들과 최근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GKP Conference를 개최하며 KPMG Global Network와의 긴밀한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의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

04 Issue Focus

2023 ASPAC Partners Conference!
한국에서 첫 개최

08 Emerging Trends

글로벌 CEO의 우선순위 변화 ...
AI에 최우선 투자 · 비즈니스에 ESG 내재화

10 Market Reader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진화,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12 Team Story

기업의 디지털 혁신 이끄는
MS-Enterprise AI 서비스팀

14 Client+

AI 직무기반 커리어 교육 및 채용
서비스 기업, 오픈놀

16 Expert's Advice

AI가 가져올 금융의 미래는?

18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20 삼성인터뷰

2023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
싱가포르에서 열려!

22 인재양성소

S.Manager 승진자,
올해는 파리로 떠나다!

24 삼성인톡

삼정인이 좋아했던
추억의 스타는?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운(運)도 실력이다

28 心 Care

멈출 수 없는 많은 생각,
생각과 친구 되기

30 Samjong News

'2023 삼성KPMG GKP Conference'
성황리 개최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2023 ASPAC Partners Conference! 한국에서 첫 개최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023 ASPAC Partners Conference'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KPMG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려 의미가 깊었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본다.



4년 만에 열린 2023 APC! 200여 명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2023 ASPAC Partners Conference'(이하 '2023 APC')가 지난 10월 25~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무엇보다 '2023 APC'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깊다. 행사 첫날 저녁에 열린 'Gala Dinner'에서 김교태 회장은 "서울에서 APC를 처음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한국 파트너를 대표하여, 모든 ASPAC 국가들의 파트너들과 동료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아울러



‘Gala Dinner’에서는 K-Culture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됐다.

본 행사에는 KPMG Global 빌 토마스 회장과 KPMG ASPAC 혼슨 토 회장 및 ASPAC 지역의 파트너 200여 명이 참석했다. KPMG의 Collective Strategy v3.0을 통해 KPMG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화두인 ESG, AI 등에 대한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됐다.

‘Collective Strategy v3.0’ 실행 속도 빠르게 진행돼야

‘Firm of the future’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 KPMG Global 빌 토마스 회장은 Collective Strategy v3.0 실행 방안을 소개하며, KPMG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017년부터 여정이 시작된 Collective Strategy는 KPMG가 가장 신뢰 받는 조직으로서, 가파른 성장을 이룰 것이

라는 목표와 핵심 전략 방안을 담고 있다. Collective Strategy v1.0이 신뢰의 재구축, v2.0이 신뢰를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 실행될 Collective Strategy v3.0은 신뢰와 성장을 가속화하는 전략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빌 토마스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더욱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함께 목표한 바를 이뤄가야 한다”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전략의 실행 속도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술 역량 및 제공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 나은 목표(For Better)를 위해 KPMG 멤버 펴(Member Firm)들이 함께 (Together) 이뤄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속 성장 이뤄온 삼정KPMG, APC에서 성장 및 향후 목표 공유

‘2023 APC’에서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Korea’s Growth Journey’ 세션을 통해 삼정KPMG의 자랑스러운 성취와 Vision 2025를 향한 여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정KPMG는 7년 연속 두 자릿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함께 ‘People First’의 인재 존중 문화와 최고의 품질을 위한 실천과 노력을 이어왔다.

김교태 회장은 ‘To be Similar, be Different!’, 경쟁을 통해 배울 점은 배우고 우리만의 장점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간의 성장을 이뤄온 전략으로 세 가지를 공유했다. 김 회장은 “진심을 담아 인재를 존중하는 People First 문화를 추진 중”이라며 “업계 최고의 보상과 최상의 업무 환경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 등 인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전문가적 윤리 의식’으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를 추구하고, ‘Go To Market’ 전략으로 고객보다 앞선 시각으로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SPAC 지역의 파트너들에게 삼정KPMG가 걸어온 성장과 앞으로의 이뤄갈 목표를 공유하며 다시금 포부를 다졌다. 한편, KPMG Korea 55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구성원들과 하나되는 기념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음을 전했다.

**AI, ESG 등 주제로 활발한 논의 및
고객사 사업 이해하는 시간도 가져**

‘2023 APC’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 ESG를 주제로 다양한 세션도 진행됐

다. 글로벌 AI 솔루션 회사인 Addo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아이샤 칸나 박사는 ‘The Future of Work: Winning with AI’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세 가지 AI 트렌드에 관한 내용과 그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KPMG 호주의 디지털 리더인 존 먼넬리 파트너는 KPMG가 추구하는 AI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새롭게 KPMG ASPAC의 ESG 대표로 선임된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는 KPMG Global의 ESG 대표인 존 맥칼라 레이시와 ‘ESG’ 세션을 진행했다. 이동석 부대표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KPMG ASPAC은 ESG의 리더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며 ESG 시장 진입의 속도와 신속한 서비스 제공, 성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협업 및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Our clients’ perspective’ 세션에서는 현대자동차 박재하 상무가 연사로 나서, 현대자동차의 전기화 및 증장기 미래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로써, 고객사의 현 상황과 미래 추진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2023 APC’ 행사 중에는 ASPAC Board Meeting을 비롯하여 ASPAC Risk Management/ COO/ Advisory Meeting도 진행돼 지역별 시장 현황 및 경영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삼정KPMG는 이번 ‘2023 APC’에서 논의된 여러 주제와 전략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Globalization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KPMG ASPAC 지역의 멤버 펌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뤄 나가고자 한다.





사진으로 보는 2023 ASPAC PARTNERS CONFERENCE!





글로벌 CEO의 우선순위 변화 ... AI에 최우선 투자 · 비즈니스에 ESG 내재화

KPMG의 '글로벌 CEO 전망(CEO Outlook)' 설문조사는 2015년 시작된 뒤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전 세계 11개국 1,325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대변혁의 시대를 진두지휘해 나가는 글로벌 CEO들이 기업 전략을 어떻게 바꿔가며 혁신을 주도하는지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Q Risk 향후 3년간 기업 성장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는?

2023년 8월 조사 결과

- ① 지정학 및 정치적 불확실성
- ② 운영적 측면
- ③ 혁신 기술
- ④ 공급망
- ⑤ 규제적 측면

2022년 8월 조사 결과

- ① 혁신 기술
- ② 운영적 측면
- ③ 규제적 측면
- ④ 환경·기후변화
- ⑤ 기업 평판



Technology

70%

CEO의 70%는 최우선 순위로 투자하고 있는 영역으로 '생성형 AI'를 꼽음

Q ESG 이해관계자의 ESG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사항은?

- 자금 조달 시 비용 상승·계약 사항 발생 **25%**
- 우수 인재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 **23%**
- 경쟁사 대비 경쟁력 하락 **20%**
- CEO 연임 가능성 불투명 **16%**
- 직원들의 소속감 저하 **10%**
- 고객 이탈 **6%**



69%

CEO 69%는 가치 창출을 위해 자사 비즈니스에 ESG를 내재화했다고 응답

82%

CEO의 82%는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우려를 나타냄

Source : KPMG 2023 CEO Outlook

올해 조사에서는 외부 환경의 거센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질주해 나가는 CEO의 모습이 부각됐다. AI(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기업 전략에 접목하려는 CEO들의 노력이 나타났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CEO 4명 중 3명 “향후 3년 세계 경제 ‘낙관적’으로 전망” ... 반면 자사 성장 자신감은 낮아

본 조사에서는 해마다 CEO들에게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자사의 성장 전망을 함께 질문을 하고 있다.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CEO들은 향후 3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CEO 4명 중 3명(73%)이 향후 3년간 글로벌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조사의 71%에서 다소 오른 수치다.

반면 자사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낮게 응답하는 경향이 올해 조사에서 보였다. 2020년 글로벌 CEO 85%가 자사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77%로 약 10% 가까이 떨어져서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자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1위(77%)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 여력 감소로 조사됐다. 2위(74%)로는 복잡한 규제가 거론됐다.

기업의 최대 리스크 ‘지정학 및 정치적 불확실성’

향후 3년간 자사의 성장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 매년 조사를 하는 가운데, 올해에는 1위로 ‘지정학 및 정치적 불확실성(18%)’이 선정됐다. 지정학 및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난해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운데 올해는 가장 큰 리스크로 올라

서 CEO들의 고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리스크 요인 2위는 운영적 측면(12%), 3위 혁신 기술(12%), 4위 공급망 리스크(10%), 5위 규제적 측면(9%)으로 조사됐다.

CEO 70% “생성형 AI에 최우선 투자” ... 시장 기회 선제적 확보

지난해 11월 말 미국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연이어 선보이는 중이며, 생성형 AI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글로벌 CEO의 관심은 본 조사에도 반영됐다. 최우선 순위로 투자하고 있는 영역으로 글로벌 CEO의 무려 70%가 ‘생성형 AI’라고 답변했다.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수익성 증가(22%), 새로운 제품 및 시장 성장 기회(15%)로 조사됐다.

아울러 CEO 52%는 3~5년 내 이와 같은 신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AI를 둘러싼 윤리성 및 책임 있는 AI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본 조사에서도 CEO들의 AI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다. 글로벌 CEO의 82%는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하여 우려를 보였으며, 57%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CEO 69% “ESG를 비즈니스에 내재화” ... ESG 경영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ESG 경영이 부상하며, 최근에는 ESG가 경영의 핵심 화두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 부각됐다. CEO 69%는 가치 창출 수단으로서 자사 비즈니스에 ESG를 내재화했다고 답했다. 24%는 향후 3년간 ESG 안건이 고

객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또한 16%는 ESG가 자사의 긍정적인 브랜드 평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18%는 ESG가 파트너십, M&A 전략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해관계자의 ESG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사항으로 25%가 자금 조달 시 비용 상승·계약 사항 발생, 23%가 우수 인재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을 꼽았다.

KPMG Global의 빌 토마스 회장은 “글로벌 리더들은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수준 상승, 생성형 AI 도입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리더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CEO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계획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존재할 수 있는 리스크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CEO는 혁신과 진화를 이끌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가고 있다. 글로벌 대외·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신기술이 급부상하는 대변혁의 시대에서 CEO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어떠한 관점에서 포착해 가는지 이번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CONTACT US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Tel. 02-2112-6744

E-mail. hyojunglee@kr.kpmg.com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진화,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2년 5,116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14.9% 성장하며 1조 2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뉴어바니즘(New urbanism)과 스마트그로스(Smart growth) 도시개발 개념이 부상하면서 인간 중심의 도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의 증가와 지능형 도시 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스마트시티는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진화 중인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진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첫째, 초기의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통합된 도시 인프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이를 넘어 도시마다의 매력을 반영한 콘텐츠와 글로벌 경쟁력과 신기술을 융합하는 경제성장 실험장으로 발전했다. 즉, 단순한 기술적용을 넘어,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신기술에 버무려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둘째, 서비스 디자인 사상이 반영된 혁신 플랫폼을 통해, 풍요로운 사용자(시민)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신기술, 행동과학 등 노하우를 활용하여 도시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노력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거버넌스가 도시성장

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을 닮아 효율적인 도시정부가 부상하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콘텐츠 중심 창업 에너지를 유발시키기 위한 열린 협업(Open Collaboration)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가 도시 구석구석에 매력적인 콘텐츠를 채우게 되고, 콘텐츠의 풍성함이 다시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를 유인하는 나선형 성장을 유발한다.

스마트시티,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스마트시티의 미래는 단순한 기술의 활용을 넘어, 도시의 고유한 매력과 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도시라도 사람을 위한 철학(서비스 디자인)이나, 콘텐츠 크리에이터(창업가)의 자발적 정주를 유인할 선순환 거대구조 모델링이 결여되면, 의미 없는 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으로 City ERP(Entire Resources Planning, 전반적 자원(서비스)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전반적 자원(콘텐츠, 네트워크, 인프라)과 시민 서비스를 통섭적으로 연결한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스마트시티의 탄생을 촉진시킬 것이다.

다음으로는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하다. 다양한 시민들의 실제 행동과 니즈를 반영하여 조화로운 거래구조와 밸류체인을 생성하고, 풍성한 시민경험(CX, Citizen eXperience) 콘텐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민의 자부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기꺼이 정주하려는 사람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또한 창업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인큐베이팅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

사람이 모이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요소, 방향 및 기대효과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시가 미래산업 밸류체인의 산파가 되어 다양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경제활동을 유발시키는 활기찬 곳으로 진화하면, 자연스럽게 이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협업하려는 기업과 산업을 유인하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사람&경제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축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사람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시티의 구축을 위해 3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 정책 수립에서의 씽킹디자인(Thinking (policy or economy) design) 도입이 중요하다. 씽킹디자인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도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민들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향상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엇이 재활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인지

정의할 수 있고, 그 자산을 다양한 분야로 'copy & paste'적인 상호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을 갖춘 정책설계자와 시민은 제한된 예산으로 확보한 디지털 자산을 창의성을 발휘해 여러 분야로 맞춤형 재활용하는 창의적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콘형 공공조직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 조직은 기존의 공공 서비스 개념을 넘어선, 혁신과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유니콘형 공공조직은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 운영을 최적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가운데, 모든 도시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합점을 찾아내는 허브

로 작용해야 한다. 더불어 서로 다른 매력을 갖춘 도시와 도시, 또는 콘텐츠 밸류체인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열린 협업도 미래 스마트시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다른 도시나 지자체에 그 사례를 확장하는 미래성장 시나리오 수립이 필요하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MC3
박문구 전무
Tel. 02-2112-0573
E-mail. mungupark@kr.kpmg.com

경제연구원 강민영 책임연구원
Tel. 02-2112-6617
E-mail. minyoungkang@kr.kpmg.com

디지털/PI 컨설팅팀과 MS 전문팀이 협업 이뤄가는 MS-Enterprise AI 서비스팀



기업의 디지털 혁신 이끄는 MS-Enterprise AI 서비스팀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의 발달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AI 도입 등 업무에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삼정KPMG는 기업들의 업무 및 비즈니스 혁신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플랫폼 기반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 혹은 DX)을 돕는 'MS-Enterprise AI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단순 플랫폼 및 툴(Tool) 도입을 넘어,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MS-Enterprise AI 서비스팀'을 소개한다.

바야호로 AI 시대,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 기대돼

2022년 11월, 오픈AI는 업계 선도적 거대언어모델(LLM) 기술과 초거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챗 GPT'를 출시했다. 이후 MS는 오픈AI와 손잡고 이 회사에 챗GPT 기반 초거대 AI 모델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해당 모델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획득해 MS의 개인-기업용 핵심 제품과 서비스에 응용하고 있다. 이처럼 챗GPT 등장 이후 제조, 생산 등 특정 영역의 전문 분야로 인식되던 AI가 일반 업무와 현업의 활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울러, RPA, 챗봇 등을 도입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업무 자동화 요구와 디지털 기반의 혁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컨설팅을 넘어 전략, 프로세스 혁신(PI), AI 도입을 아우르는 디지털 전환 전반의 컨설팅에 대한 니즈(Needs)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 도입에 따라 기업의 각 비즈니스 부문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AI 기반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업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기업이 원하는 모든
AI 비즈니스 역량 갖춘 팀**

삼정KPMG는 기업들의 AI 도입 등 디지털 업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MC2본부의 디지털/PI 컨설팅팀과 MS 전문팀이 협업을 이뤄, Enterprise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하는 이준기 상무와 솔루션 분야를 리드하는 김정원 전무가 함께 손을 잡고 추진 중이며,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어떤 요청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MS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새롭게 MS 제품 사용을 원하는 기업, 혹은 MS 외의 제품 사용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AI Business 역량을 보유하고 됐다. 특히, 컨설팅-PI-구축-운영 각 단계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MS, 네이버, KT, Google 등 AI 전문 업

체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개발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일찍 AI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MS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직접 라이선스와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춰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No.1 AI 서비스팀으로 거듭날 것!

MS-Enterprise AI 서비스팀은 앞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AI 서비스 시장에서 삼정

KPMG가 Major play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L사의 생성형 AI의 기술검증 (PoC)을 시작으로 통산, 유통, 서비스, 제조, 에너지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시나리오 검증과 데모를 위한 KPMG의 오픈AI 테넌트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정KPMG의 모든 팀에서 기업들의 AI를 경험하게 하고 Audit, Tax, Deal 업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MS-Enterprise AI 서비스팀을 소개한다면?

김정원 전무
jkim185
@kr.kpmg.com



우리 법인은 국내 Big4 중에 유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KPMG Global에서도 여러 솔루션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 가장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AI 뿐만 아니라 ERP, CRM, Low-Code 모든 분야에서도 고객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상무
jlee199
@kr.kpmg.com



삼정KPMG는 디지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AI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AI를 통해 업무 변화를 체감하고, AI와 구성원들이 협업하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AI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촉매가 되겠습니다.

**MS-Enterprise AI 서비스팀의
주요 서비스**

- # AI 도입을 위한 전략 컨설팅
- # AI 관리를 위한 AI 거버넌스 수립
- # AI 적용을 위한 PoC 수행
- # AI 구축/활용을 위한 솔루션 구축 및 라이선스 중계

조용호 Director
fcho
@kr.kpmg.com



우리 팀은 AI를 활용해 고객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식품 대기업에서 오픈AI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GPT 문답을 통해서 내/외부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성형 AI에 대한 선도적 경험과 역량을 통해 Big4 중 최고의 AI 컨설팅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김수민 S.Consultant
skim314
@kr.kpmg.com



우리 팀은 기존의 경영 컨설팅 역량과 결합하여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지식과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직무기반 커리어 교육 및 채용 서비스 기업, **오픈놀**

1

(주)오픈놀은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주자”라는 비전으로 2012년 4월에 설립됐다. AI에듀테크 기반으로 기업들의 채용을 도와주고 구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다양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AI 직무기반 커리어 교육 및 채용 서비스 기업 오픈놀을 소개한다.

2012년 4월에 설립된 (주)오픈놀은 AI에듀테크 기반으로 기업들의 채용을 도와주고 구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다양한 SW 직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AI를 적극 활용한 미니인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경력자, 이직자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단절녀, 취업취약계층 등 대상을 확대하여 모두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생애주기 이력 관리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구인·구직 온/오프라인 매칭 플랫폼 미니인턴

오픈놀의 주 사업은 AI를 활용한 구인·구직 온/오프라인 매칭 플랫폼 ‘미니인턴’이다. 기존에는 학력, 자격증, 대외활동 등과 같이 스펙 만들기에 치중했던 배경에는 공채를 통해 사람을 뽑은 뒤 직무 능력을



2

1. 서울 합정 메세나폴리스에 위치한 오픈놀 사무실 전경 2. 오픈놀 사내 문화 행사 중 단체 사진 3. 오픈놀의 권인택 대표 4. 창업 건립 조성 기부 기념 사진 5. 2021년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오픈놀

개발시켰다. 하지만, 점차 직무중심의 실무형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이에 오픈놀은 미니인턴을 통해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면서, 구직자에게 구인기업의 실무를 온/오프라인으로 경험시켜주고, 매칭함에 따라 기업과 구직자에게 상호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오픈놀은 2017년에 미니인턴 서비스를 론칭했다. 론칭 후 3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그간의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 셋이 완결성을 갖게 되면서 2019년 기점으로 급성장했다. 그 결과 2022년 말 기준으로 누적 회원 수는 51만 명, 기업 수는 6,000개 사 이상이며 2023년 지금도 지속 증가 중이다.

미니인턴의 성장 요인... 채용시장 해체&채용방식 변화&트렌드 변화

미니인턴 성장 이유로는 크게 3가지의 요인이 있다. ①채용시장의 해체 ②코로나19로 인한 채용방식의 변화 ③글로벌 트렌드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채용, 이직, 퇴직과 같은 고정된 틀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N잡러, 깃 워커, 헤드 헌팅처럼 고정된 시장의 형태가 깨져 분화 중인 채용시장에 변화를 미니인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선제 대응하여 분화된 채용시장에 대한을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시켰다. 채용과 교육 역시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요구됐다. 오픈놀은 온라인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처럼 보다 입체적이고 현장감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직무중심의 채용, 스펙 없는 채용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오픈놀의 비전인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주자"와 동일하다. 한편, 오픈놀은 2021년 청년고용 촉진부문 대통령상 수상 및 6년간 10회의 우수 취창업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했다. 시를 활용해 기업 맞춤 프로젝트 추천, 구직자 맞춤 에듀케이션 제공 등을 통해 사업성진단 A등급도 받게 됐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술특례상장유형으로 2023년 6월 30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신사업으로 시니어 사업 영역 확대할 것

오픈놀은 AI 채용 플랫폼 서비스 '미니인턴'의 대상을 기존의 대학생·취준생에서 중·장년층으로 확장한다. 현재 심각한 중·장년층 장기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확대를 결정했으며 은퇴자 구직 지원, 중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개발 등 중·장년을 위한 직업 지원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채용 플랫폼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OPENKNOWL



사업 확장을 통해 미니인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노년층 고용 지원이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 추구로 오픈놀의 채용 시장 입지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은퇴한 중·장년들의 사회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들은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로 성장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립 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 취업 촉진 활동 전개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목표로 자신감 향상, 진로 설정, 취업 준비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고립 청년들이 자립할 다양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공간 지원 사업, 커뮤니티 지원 사업,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은둔 청년이 가장 많은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전국 단위로 프로그램을 확장할 예정이다. 전국의 20곳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가 가져올 금융의 미래는?

최근 금융권의 큰 이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 혹은 DX)이다. 이미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다양한 AI솔루션, 챗봇 등을 통해 지능형 자동화를 도입 중이다. 우리나라 금융사들 역시 앞다퉀 디지털 금융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0월에 열린 ‘한경·삼정KPMG 디지털 금융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이동근 전무를 통해 AI가 가져올 미래와 그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려 한다.



Digital 이동근 전무

Tel. 02-2112-7587
E-mail. tongkeunlee@kr.kpmg.com

Q AI가 가져올 금융 시장의 미래는 어떠한가요?

AI는 금융 시장의 Front/Middle/Back Office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Middle Office에서 AI는 사기 탐지(Fraud Detection), 불법자금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등 금융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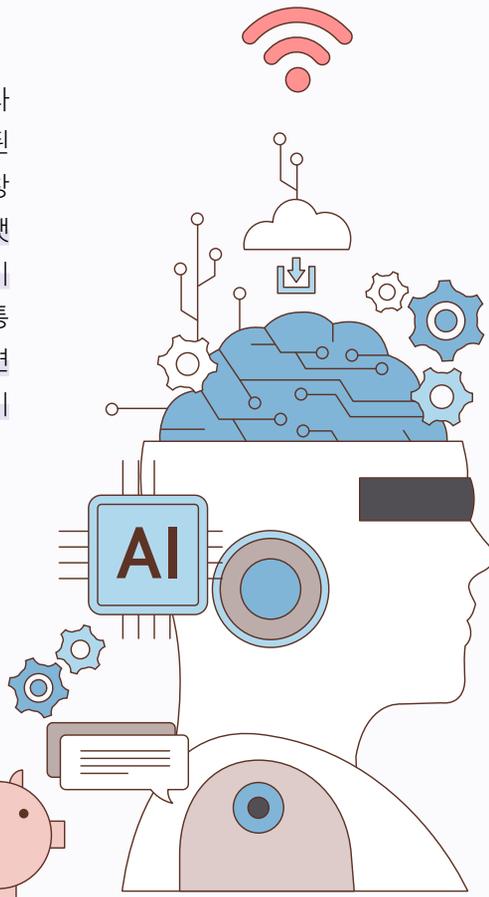
Back Office에서 AI는 문서관리, 거래처리, 결산, 인사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로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며, 합성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코딩 작성까지 활용되는 등 인간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Front Office에서 AI는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발굴하여 금융 소비자에게 향상된 개인화 서비스 제공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머신러닝 등 전통적인 AI 알고리즘에 생성형 AI가 접목되면서 획기적인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가 출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금융 기업들의 AI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본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비즈니스 효율화·최적화'를 목표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데이터 중심의 업종으로 고객 경험 제고,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AI 기술의 적용으로 매우 큰 비즈니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AI-Powered DT' (AI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 가속화)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Q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해 금융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AI 도입으로 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지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AI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확하고 최신의 데이터 확보, AI 기술 및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업, 시스템 인프라와의 유기적 통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기에는 적용 가능성 실증(PoC)이나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AI 도입 성과를 측정하면서 지속적인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조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설계 및 배포되어 AI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는 AI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최근 새로운 디지털 증권인 토큰증권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신소재로 대체한 반고체 배터리 역시 배터리 업계의 화두이다. 이번 호에서는 토큰증권발행과 반고체 배터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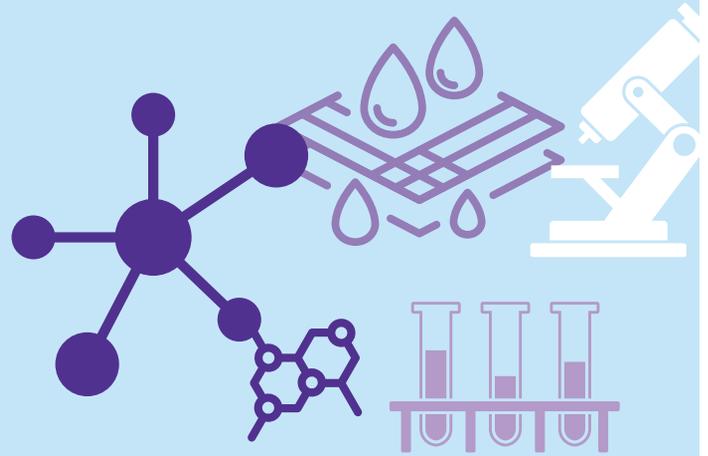
새로운 금융 물결

토큰증권발행 시대 활짝! (STO-Security Token Offering)

회사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으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은 물론 선박·항공기 미술품 등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의 권리를 손쉽게 유동화해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해 조각 투자가 가능해져요.

STO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역시, STO 투자를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됐어요.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기업이 손쉽게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산을 전자증권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된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9월 21일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발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엔터프라이즈·오픈에셋 등이 참여한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는 지난 5월 발행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개발에 착수했고, 4개월 이후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및 청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구현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시범발행까지 완료했다고 하네요.



배터리 신기술, 신소재로 만든 반고체 배터리 (Semi Solid State)

반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젤 등의 신소재로 대체한 배터리인데요, 액체 전해질을 쓰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중간 형태로, **젤리 같은 형태의 전해질을 사용해요. 고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지난 2021년 미국 솔리드에너지시스템(SES)에 1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바 있어요. 미국 SES가 만드는 반고체 배터리는 ‘리튬메탈’ 전지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 거리는 30% 늘고 12분 만에 10%에서 90%까지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이르면 2026년부터 반고체 배터리, 2030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편, 위라이언, CATL 등 중국 배터리사들은 반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어요. 삼성SDI와 SK온은 직접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력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에요!



Happy workplace



원본과 인터뷰

삼정인터뷰

2023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
싱가포르에서 열려!

20

인재양성소

S.Manager 승진자,
올해는 파리로 떠나다!

22

삼정인특

삼정인이 좋아했던
추억의 스타는?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운(運)도 실력이다

26

心 Care

멈출 수 없는 많은 생각,
생각과 친구 되기

28

Samjong News

‘2023 삼정KPMG GKP Conference’
성황리 개최 外

30

2023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 싱가포르에서 열려! KPMG 신임 파트너들의 교류의 장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싱가포르에서 2023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이하 '2023 GNPC')가 개최됐다. GNPC는 143개국 KPMG 멤버 펌의 신임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로, 삼정KPMG 신임 파트너들도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3 GNPC에 참석해 전 세계 KPMG 신임 파트너들과 교류하고 돌아온 신임 파트너 4인을 만나 참가 소감을 들어본다.



KPMG 행사장 입구에서

백천욱 사무 (Tax3)

2023 GNPC 세미나 현장

명확한 목표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배우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KPMG가 정말 큰 조직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구성된 조직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울러 신임 파트너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세미나 구성과 중간중간 이뤄진 공연, 멋진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 이번 행사를 준비한 많은 분들의 노고가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특히 KPMG Global의 빌 토마스 회장님 강연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현재까지 KPMG가 어떤 방향으로 오고 있었고, 2023년부터는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제가 조직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방향에 맞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또한, 복잡한 환경에 처한 지금,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제 상황에도 필요했던 것 같아 마음에 와닿았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Tax 프로젝트를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여러 나라에 의미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이번 행사에서 만난 여러 국가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New Leader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고객사 보고 일정이 겹쳐 매우 바쁜 와중에 GNPC에 참석했는데, 전 세계 약 680명의 신임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큰 행사 규모에 매우 놀랐고, KPMG의 일원으로서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KPMG Global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Collective Strategy v3.0에 대한 내용을 빌 토마스 회장님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 인상적이었고, KPMG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또한, Welcome Reception Party는 다양한 국가의 신임 파트너들과 업무 외적으로 소통하며 긴장감을 덜고 KPMG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어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빌 토마스 회장님과 인사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신임 파트너가 되고 나서 처음 경험한 글로벌 행사인데 GNPC 참석을 통해 Global Network 강화 및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어요. KPMG의 New Leader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Vision 2025 달성을 통해 KPMG Korea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 사무 (MC2)

ASPAC Region Dinner에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배경 한국 동료들과 New Leader 의지를 다지며



Welcome Reception Party에서 빌 토마스 회장, B&F3 이현승 사무와 함께



좋은 자극을 받은 시간

2023 GNPC에서 빌 토마스 회장님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신임 파트너들을 보면서, '와, 내가 엄청난 조직에 소속되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KPMG의 한 일원으로서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세션은 아무래도, 첫 세션이었던 빌 토마스 회장님의 'Our journey & firm of the future' 세션입니다. 특히, 빌 토마스 회장님은 KPMG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소중함과 'Relationship'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신임 파트너들은 현재가 가장 에너지가 있는 시기이니, 이때 외부로 고객 네트워크를 강화, 확장하여 파트너로서의 기반을 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울러 저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각국 신임 파트너들의 KPMG에 대한 애착과 성장에 대한 열정에 새삼 놀랐고 좋은 자극을 받았어요. 저 역시도 신임 파트너로서 KPMG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KPMG가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극복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성장에 일조하겠습니다.

KPMG인이라는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었던

'2023 GNPC'에 참가하며 KPMG Global 조직의 일원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전 세계 수많은 KPMG 멤버 펌에서 승진한 680여 명이 파트너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의미 있었어요. 먼저 첫째 날 Welcome Reception에서는 KPMG Global의 빌 토마스 회장님도 뵈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둘째 날 컨퍼런스 일정은 KPMG에서 추진 중인 Collective Strategy를 비롯해 Digital Transformation, AI, ESG, Team building activity 등 흥미로운 주제 및 활동으로 구성됐는데, 유익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쌓을 수 있던 좋은 기회였어요. 아울러 그날 저녁에 열린 ASPAC Regional Dinner에서는 중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파트너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토론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타 멤버 펌들의 신임 파트너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컨퍼런스에 진행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최대한 배우고 알아가려는 적극성 역시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저 또한, 이번 행사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신임 파트너로서 KPMG가 지향하는 Value를 스스로 실천하고, 팀원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습니다!



S.Manager 승진자, 올해는 파리로 떠나다!

삼정KPMG는 FY23 Senior Manager 승진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주간 프랑스 파리로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올해는 단체 일정 1일과 자유여행 9일로 자유 여행이 확대되었고, 전체 일정에 가족도 동행할 기회도 제공했다. 이번 호에서는 승진자들의 생생한 연수 후기를 소개한다.



송성화 S.Manager (ICE1)

가족과 함께한 모든 여행 순간이 행복!

이번 해외연수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 여행할 기회가 주어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파리에펠탑이 보이는 마르스 광장에서 돛자리를 펴고 가족과 함께 쉬던 순간이었죠.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최근의 바쁜 일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첫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단체 일정뿐 아니라 자유여행에서도 많은 배려를 받아 사람 사는 세상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일상이 되기에,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법인과 단체 일정을 계획해 주신 L&D본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아직 직급 승진이 체감되지 않지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엄친딸로 만들어준 해외연수!

저는 엄마와 함께 해외연수를 떠났어요. 엄마가 평소 미술작품에 관심이 많으신데, 유명한 미술가들이 생애를 보냈던 파리 거리를 걸어보고, 그들이 남긴 유명 작품을 실제로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엄마와 함께 파리 야경을 보며 산책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남아요. 아름다운 에펠탑과 고요히 흐르는 센강을 감상하던 순간이 행복했어요. 자유 여행으로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다녀왔어요.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두브로브니크는 파리와는 또 다르게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네요. 이번 계기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추억도 쌓고, 진정으로 제 몸과 마음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2주간의 행복한 휴식으로 쌓은 에너지를 법인의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특히, 갓 매니저로 승진하여 고충을 겪고 있을 매니저 1년 차 후배들에게 해외연수의 좋은 경험을 공유하여 에너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민 S.Manager (Tax3)

사진으로 만나본 New S.Manager 승진자 해외연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재충전할 수 있던 시간

이번 연수의 모든 순간과 하루하루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하루 하루를 잘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가는 지역마다 목표 테마를 정해 즐겼어요. 파리, 시칠리아, 이집트 3곳을 방문했는데요, 파리의 테마는 '와인 및 쇼핑', 시칠리아는 '음식과 해변', 이집트는 '거침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를 테마로 정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은 여행지는 이집트인데요, 피라미드, 각종 신전들을 방문했고, 열기구 투어, 홍해 스쿠버다이빙, 나일 강에서의 수영, 사하라 사막 투어 등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즐기고 왔어요. 몇 년간 장기 휴가를 가지 못한 저에게 이번 연수는 말 그대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양한 국가, 종교, 문화, 사람들을 접하며 다시 한번 생각의 틀을 깨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여행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번 해외연수는 어릴 적에 지닌 예술이란 꿈을 떠올리게 했고, 매 순간 심장을 뛰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어요. 인상파의 창시자 모네의 자취를 따라 거닐었던 지베르니, 옹플뢰르 그리고 파리의 미술관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숨결을 일으킨 가우디의 기억들의 공간을 하나하나 훑아보면서 한 위인으로부터 시작된 예술의 인격이 수 세기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감화의 파동을 일으켰는지 어리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답할 수 있었네요. 또한, 저는 아내와 함께 이방인이 되어 유럽 도시를 거니는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연수 단체 일정 중 파리 센강의 디너 크루즈에서 받은 생일 축하 역시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처럼 승진자 연수라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통해 느끼고 받은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저 역시도 삼성KPMG를 위한 명작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정인이 좋아했던 추억의 스타는?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열광했던 스타가 있을 것이다. 그 스타들은 가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한다. 한 때 삼정인들이 열광했던 추억의 스타는 누구였을까? 이번 '삼정사톡' 이벤트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 스타들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도 들어본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준 비틀즈

노명준 S.Senior (B&F2)

제가 학창 시절 가장 열광했던 스타는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는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제 정체성을 형성해 준 스타이기 때문이죠. 비틀즈의 노래와 가사는 사랑, 자유, 평화 등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메시지들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그들의 음악과 퇴행 없는 창법, 독특한 개성은 무한한 상상력과 예술적 표현을 열어주었고, 이를 통해 세계관을 넓힐 수 있었어요. 더불어, 비틀즈의 멤버들은 인간다운 면모 보여주며, 그 점에서 따뜻한 우정과 공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말까지 완벽한 윤하 & 아이유!

고광균 대리 (Q&RM-RM)

제가 좋아하는 스타는 우리나라 대표 싱어송라이터, 윤하와 아이유입니다. 두 가수 모두 뮤지션으로서 실력이 뛰어나요! 가창력은 물론 노래의 멜로디, 가사말도 너무 좋다고 느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두 가수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열광했던 프로레슬링

이재곤 이사 (ITS)

9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프로레슬링을 좋아했고 관련 자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미국 AFKN에서 보여주던 WWF 프로레슬링에 열광했어요. 특히 중학교 시절, 반 아이들과 레슬링 하면서 놀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하하. 저는 헐크호건, 워리어, 마초맨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빛, HOT!

정인호 Manager (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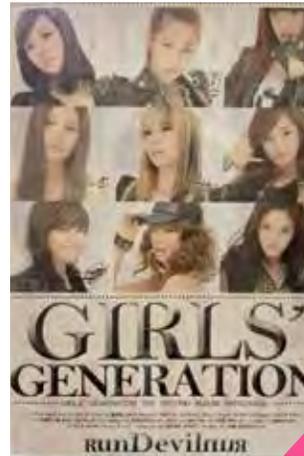
저는 HOT 라는 그룹이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누나의 영향으로 남자 5인조 그룹을 좋아하게 되었고, 특히 '빛'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이때 당시에, IMF라는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 가족에게 힘을 주는 노래였고, 특히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는 노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 1세대 아이돌이고, 그 시절에는 사진에서처럼 책받침, 브로마이드 등 많은 것들이 유행했어요. 이제는 8살 아들도 있는 누나의 책상 서랍에 잊혀 있던 추억을 사진으로나마 담아 삼정인들에게 공유해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홍훈 직원 (IM2)

학창 시절, 아이돌 그룹이 정말 많았는데요, 당시 많은 남학생들은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팬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9명으로 데뷔해 각자만의 개성으로 어필이 가능한 칼군무의 아이콘 소녀시대 팬이었어요!! 소녀시대는 다른 남자 아이돌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칼군무 실력을 보여줬고, 컴백하는 노래마다 다른 분위기의 타이틀을 보여주며, 여러 장르를 소화해냈어요. 즉, 새로움과 신선함을 보여주는 그룹 같아요. 당시 음악방송은 물론 연말 가요대전 무대를 보는 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시절이 그리운 건지,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라는 구호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네요.



천재테란 이윤열!

김이호 S.Analyst (Deal Advisory1)

스타크래프트가 유행이던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윤열은 제 플레이 스타일의 롤모델이었습니다. 테란의 황제 임요환 이후로 등장하여 테란의 황금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스타리그와 프로리그에서 보여줬으며, 스타리그 3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골든마우스를 최초로 수상하며 저의 유년시절 큰 즐거움이 되어주었던 이윤열에게 늘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몰이창법이 멋진 박효신

정태현 S.Manager (MC4)

저는 박효신이 떠오르네요, 당시 미모의 여자친구가 소몰이 창법이 멋있다고 매일 같이 들으며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박효신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그 여자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EXO

조한솔 Consultant (Digital)

저는 엑소의 데뷔일인 2012년 04월 08일부터 14살의 어렸던 저는 25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빠들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멤버 모두 잘생겼고, 노래도 잘해요. 무엇보다, 팬들과 소통하고 늘 챙겨주려는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어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그만큼 기쁜 일도 많았지만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친구같이 편해지고 끈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위아원 엑소 사랑하자~♥





“운은 버스와 같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탈 수가 없다”

운(運)도 실력이다

인생은 ‘운(運)’과의 함수다. 선조들은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시운(時運)과 천명(天命)을 따져 일을 도모하는 건 상식이었다. 큰 성공을 거둔 CEO들 중에는 사업을 위한 필수 양분을 아무리 콕콕 눌러 채워 넣었다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말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 피 터지는 도박판의 타짜들조차 여기에 대해선 이

견이 없다. 그러나 운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세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7:3의 법칙: 운칠기삼

일단 운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괴이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요재지이(聊齋志異)>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의 관련 스토리다.

“한 선비가 자신보다 변변치 못한 자들은 버젓이 과거에 급제하는데, 자신은 늙도록 급제하지 못하고 패가망신하자 옥황상제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옥황상제는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에게 술 내기를 시키고, 만약 정의의 신이 술을 많이 마시면 선비가 옳은 것이고, 운명의 신이 많이 마시면 세상사가 그런 것이니 선비가 체념해야 한다는 다짐을 받았다. 내기 결과 정의의 신은 3잔밖에 마시지 못하고, 운명의 신은 7잔이나 마셨다. 옥황상제는 세상사는 정의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따라 행해지되, 3푼의 이치도 행해지는 법이니 운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선비를 꾸짖고 돌려보냈다.”

요컨대, 인생에서 모든 일의 성패는 하늘(운)이 7할을 차지하고, 인간(재능, 노력)이

3할을 차지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행·불행에 따라서만 결판나는 게 아니므로 운수에 기대지만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라는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다. 결국 이 근본 구조를 이해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쓰는 경우가 태반이다.

흥미로운 것들 중에 경마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마칠기삼(馬七騎三)'이 있다. 조리업에선 재료가 7, 솜씨가 3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인생법칙은 대개 7:3의 원리라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운은 도덕과학이다

한편 자주 듣게 되는 “내 운명은 바꿀 수 있는가?”라는 말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인생사는 일종의 싸이클 곡선이라서 좋고 나쁨은 누구에나 있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 운으로 만들어 가느냐, 즉 운명곡선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당 서정주는 자신을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 노래하였다. 그것이 운수이건, 말이건, 바람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



누구에게나 일생에 세 번은 대운(大運)이 찾아온다고 한다.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내공 없이 대운을 받게 되면 내 작은 그릇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다가오는 행운은 두려워해야 한다. 평소 불평이 많거나 늘 실패하는 루저들이 내뱉는 변명의 대부분은 자신의 실력은 충분한데 운이 나빴다는 거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알고 나면 진정 “운도 실력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하늘이 부여하는 운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동양 최고수들

은 하나같이 운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준다’, ‘하늘이 돕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운’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공’이 된다. 공을 들이면 운이 따르게 된다는 게 하늘의 원리가 아닌가 싶다.

그리 본다면 운이란 결국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리라. 따라서 운은 긍정의 힘이자 ‘도덕과학’이라 평가된다. 로마시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잘라 말했다. “운명(運命)은 용기 있는 자에겐 약하고, 비겁한 자에겐 강하다.”

운시도래(運時到來)! 과연 대운이 열리는 건 어떤 기분일까?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볼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멈출 수 없는 많은 생각, 생각과 친구 되기

멈출 수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지친 적이 있는가?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일상에서 생각이 많고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정신적 활동이 과다하게 많은 증상일 수 있다. 과도한 정신적 활동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정신적 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서 잘 지치는 편이라면 생각과 함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모색해 보자.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정신적 과잉 활동 증후군

- 사소한 걱정이 많고 탄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 감각(특히 소음, 이상한 냄새, 환한 빛)에 예민하다.
- 정렬, 조직화와 관련된 좌뇌 활동보다는 정서와 관련된 우뇌 활동이 더 활발하다.
- 감정 기복이 심하다.
-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르면서 몰입하게 된다.
- 비언어적 신호(말투, 표정, 뉘앙스)에 민감해 상처받을 때가 많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제 생각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멈추게 하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이다’는 말이 있다. 생각이 과하게 많은 증상을 일컫는 ‘정신적 과잉 활동 증후군(PESM, Personnes Encombrées de Surefficiency Mentale)’이 있다. 정신과적 진단이나 질환명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증상’ 정도로 이해하면 좋다. 그러나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증상이라기보단 생각을 많이 하고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성향의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편이다. 전 세계 인구의 10~15% 정도가 정신적 과잉 활동 성향이 있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생각과 감각과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 활동이 과도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내는 세 가지가 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고, 주변 감각에 과민하다. 선천적으로 감각 활동이 예민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모두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수적인 정보들은 거르는 활동을 어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중요도와 관계없이 모든 감각을 입력하고, 또 하나하나 관심을 주게 되고 생각 또한 많아진다. 다양한 생각들에 재빠르게, 그러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면 그 생각들이 어느새 나에게 둘러붙어 있다.

각 생각들이 만들어 내는 감정이 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과민성은 타고난 신경회로의 문제이기에 ‘나는 왜 이런 것일까’를 탐색해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 그 질문은 내려놓자.

애석하게도,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높아진다. (긍정적인 생각만 급속도로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에 가까울 수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활동에 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는 한편으로는, 부정적 생각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이유 없이 지속되거나, 남들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기가 어려워 위축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감정이 과민하고 걱정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거절, 비난에 취약하다.

생각에 반응하는 태도를 바꾸기

눈덩이를 굴리듯 부풀어 오르기만 하는 생각들이 고속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들의 탄생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떨쳐내려 연연하기보다는 그 생각들에 반응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의 생산자는 나 자신이다. 생각을 끝없이 하는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일단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을 하는 자신을 관대하게 평가 없이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에 적합한 뇌를 가졌다. 일주일 중 일정 시간을 창의, 창조하며 발산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생각이 굴러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여력이 된다면 전문적 상담 기관을 꼭 방문하기를 권한다.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어서가 아니다. 안전하게 생각을 개방해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생각은 머릿속에 가둬두는 순간 자신만의 색깔과 냄새가 짙어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정신적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걱정도 많기에 편안하게 생각을 꺼내보고 객관화되는 경험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비교적 안전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통해 생각을 환기시키는 경험을 꼭 하기를 당부한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2023 삼정KPMG GKP Conference’ 성황리 개최 기업 Globalization 위한 Network 강화



삼정KPMG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2023년 GKP Conference’(GKP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GKP 네트워크의 강화된 협력을 약속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GKP Network 강화를 위해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삼정KPMG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지원하기 위해 GKP(Global Korea Practice)를 설립했다. 현재 24개국 30개 KPMG 오피스의 Korea Desk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올해로 12회째에 접어든 GKP 컨퍼런스에는 13개국의 KPMG 파트너 및 멤버, Korea Desk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GKP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을 찾아주신 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환영 인사를 건네며,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2023 ASPAC

Partners Conference가 개최됐고, 현장에서 삼정KPMG의 성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마도 GKP Network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GKP 멤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GKP 컨퍼런스를 통해 GKP Network 간의 긴밀한 협업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지난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

2023 GKP 컨퍼런스는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월 6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캐나다·독일·베트남·뉴질랜드·호주·멕시코·폴란드·영국 9개국의 Korea Desk에서 세미나를 열어, 국가별 투자 환경 및 향후 진출 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세미나 진행 중에는 신청 기업에 한해 각국의 Korea Desk와 1:1 개별 미팅을 통해 관심 국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70여



개 기업 14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울러, GKP 컨퍼런스가 열린 주에는 Korea Desk 현지 전문가와 각국 파트너들이 고객사를 방문해 이들이 안고 있는 이슈와 해외 진출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했다. 올해는 80개의 고객사를 방문했다.

최신 이슈 등에 관한 협업 방안 모색해

11월 7일에는 삼성KPMG 본사 교육장에서 메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방안 모색 및 ESG,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등 최근 화두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진행했다.

먼저, 2023 GKP Network의 최신 소식을 공유하고, 삼성KPMG가 이뤄온 성장과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세 가지 핵심 토론 주제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ESG 세션에서는 현재 한국 ESG 공시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지정 감사로 인한 변동 사항과 그에 따른 감사 고객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업 방

안에 대해 모색했다. 끝으로 삼성KPMG 세무본부에서 제공하는 관세 서비스를 공유하고, 개정된 한국의 세금 규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 도 도입에 따른 CFC(특정외국법인) 과세 규정 및 DRD(수입배당금공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삼성KPMG는 ‘2023 GKP 컨퍼런스’를 통해 GKP Network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현지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GKP Network를 확대해 나가고, 각 지역 이슈에 따른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CONTACT US

BD&Markets
신경철 부대표
 Tel. 02-2112-0788
 E-mail. kshin@kr.kpmg.com

BD&Markets
정재완 S. Manager
 Tel. 02-2112-3176
 E-mail. jaewanjung@kr.kpmg.com

삼정KPMG, 'KES 2023'에서 ESG 행사 공동 주관



1. ESG 세미나 현장 2. ESG 혁신 챌린지 대회 기념 사진

삼정KPMG가 '제54회 한국전자전(KES 2023)'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공동으로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ESG 행사를 진행했다. 'KES 2023'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IT 산업 전시회이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ESG 세미나' 진행

삼정KPMG는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5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자·IT 산업계를 대상으로 'ESG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개최와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삼정KPMG 문상원 상무가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는 국제 ESG 공시 의무화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고 전자산업이 당면한 이슈 및 단계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그린워싱 리스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린워싱 관련 국내외 법제화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슈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전했다.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현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짚어보고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식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연은 누빅스의 강명구 부사장이 맡았다. 강 부사장은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고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였다.

'ESG 혁신 챌린지 대회' 후원

10월 26일에는 전자·정보기술(IT)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ESG 가치확산과 ESG 기술·비즈니스 모델(BM) 발굴을 위한 '제2회 ESG 혁신 챌린지 대회'가 열렸다. KEA, 삼정KPMG 및 KoDATA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본 대회에, 삼정KPMG는 행사 후원뿐만 아니라 심사 및 상장 수여에 기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상(KEA 회장상) - (주)갈다, ▲우수상(삼정KPMG 대표이사상) - (주)큐라코, ▲우수상(KoDATA 대표이사상) - 리사이클렛저(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위 3개 수상 기업에는 상장과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개인부문인 2023년 ESG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KEA 회장상) - 이창민, ▲우수상(삼정KPMG 대표이사상) - 정재운 ▲장려상(KoDATA 대표이사상) - 팀 트리아이디, 팀 바구니가 수상했다.

삼정KPMG-한국경제신문, ‘디지털금융 포럼 2023’ 개최



1. 포럼 개최사에 나선 삼정KPMG 김교태 회장 2. 디지털금융 포럼 기념 촬영
3. 포럼 전경 4. 삼정KPMG 조재박 부대표 5. 삼정KPMG 이동근 전무

사진출처: 한국경제신문

삼정KPMG가 한국경제신문사와 10월 18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금융 포럼 2023’을 공동 개최했다. ‘AI시대의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았다. 김 대표는 “AI 시대 동네가게는 기업과 일반 소비자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혜택을 적게 받을 위협에 처했다”며 한국신용데이터는 동네가게 운영 관리 솔루션인 캐시노트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어 ‘AI가 가져올 금융의 미래’ 세션에서 마음AI(옛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 삼정KPMG 이동근 전무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유 대표는 AI와 금융업을 접목한 성과를 소개했다.

삼정KPMG 이동근 전무는 “금융산업에서 데이터가 우선 중요하고 AI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공통점이 될 것”이라며 “(AI와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기존 사업의 매출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AI의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는 면도 있다”며 “AI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는 수

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트렌드 및 디지털의 역할’ 세션에선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삼정KPMG 조재박 부대표가 금융 기술의 미래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를 강조했고, 삼정KPMG 조재박 부대표 역시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사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통해 금융과 비금융을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사 본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조 부대표는 “금융사도 고객 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하면 업무를 효율화하고 개인정보 보안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대 차상균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LKB 이정엽 대표변호사, 교보생명 변승현 미래사업연구소장, 하나카드 이석 CDO, 8퍼센트 이호진 대표, 삼정KPMG 장지수 부대표 등 핀테크 전문가들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제6회 회계의 날’,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11명 표창 수상



표창명	수상자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상일 부대표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재범 부대표, 한상현 부대표
국세청장	김진현 상무, 김정은 상무
금융감독원장	신재준 전무, 박관종 전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승미 상무, 김유미 상무, 이주영 상무, 조우리 차장

지난 10월 31일 ‘제6회 회계의 날’을 맞이했다. ‘회계의 날’은 2017년 신(新)외부감사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등 민간 주관으로 만들어진 기념일로,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회계의 날’을 맞이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계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삼정KPMG에서는 총 11명이 표창을 받아 법인의 위상을 높였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삼정KPMG-오브젠, 초거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업무협약 체결



▲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 박상원 부대표(우)와 오브젠의 이형인 대표(좌)

삼정KPMG가 지난 11월 1일 역삼동 본사에서 인공지능(AI) 마케팅 솔루션 기업 오브젠(대표 이형인)과 초거대 인공지능(Hyperscale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를 활용하여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삼정KPMG는 고객사의 AI 기반 비즈니스 케이스를 발굴해 디지털 전환에 오브젠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오브젠은 기존의 마테크(MarTech) 및 AI 역량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연어 기반 마케팅 지원 서비스에 힘쓸 예정이다.

이동석 부대표, ASPAC Head of ESG 임명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SG)가 KPMG ASPAC의 ESG 리더로 임명됐다. 삼정 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 이 부대표는 ESG 경영 및 공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Big4' 중 ESG 전문가 그룹을 처음으로 꾸린 바 있다.

KPMG ASPAC은 “이동석 부대표는 사업부 문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삼정KPMG를 No.1 ESG 자문사로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이 부대표의 ASPAC ESG 리더 역할을 환영한다”며 축하했다.

‘이영표와 함께하는 삼정포럼’ 성과와 실패를 주제로 강연해



지난 11월 8일 ‘삼정포럼’이 팀즈 라이브 (Teams Live)와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영표 해설위원 (前 축구 국가대표)이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영표 위원은 어린 시절부터 축구 국가대표로 성장해온 스토리를 들려주며, 경험을 통해 느낀 성과와 실패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외에도 Q&A 시간을 통해서 2002년 월드컵 경기, 토트넘에서의 선수 생활, 해설위원을 하며 느낀 점 등 그동안 이영표 위원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삼정KPMG, ‘제10회 4대 회계법인 친선 야구대회’ 우승



지난 10월 14일 남양주 이패야구장에서 개최된 ‘제10회 Big4 야구대회’에서 삼정KPMG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토너먼트로 치러진 경기에서 1차전 한영회계법인을 만나 1회 말 0:2로 끌려갔지만, 2회 초부터 경기를 뒤집고 최종스코어 23:4로 승리했다. 1차전 승리 후, 안진회계법인을 가볍게 물리치고 올라온 삼일회계법인을 결승에서 만나고, 1회 말부터 9:0으로 경기를 리드했다. 야구대회 사상 전례 없는 최종스코어 17:1를 기록,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경기 MVP는 결승전에서 완투승을 따낸 좌완투수 이형용 Associate(IGH)에게 돌아갔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